

간적 자기 영광(榮光)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자신이 선택한 어떤 욕망들과 목적들과 계획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⁹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ī Deo gloria)이라는 칼빈의 전체 신학과 예배신학의 중심 사상과 함께, 이런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같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예배를 이해하고, 목회와 선교와 일상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예배, 의식, 교회, 말씀, 영광

98) W. Niesel (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 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A. G., 1938³), S. 336-337; *Theologische Erklärung zur gegenwärtigen Lage der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 29(31), Mai 1934.

6 칼빈의 교회론의 본질과 그 의미

배경식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1. 들어가는 말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칼빈학회의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은 교회론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일치와 목회사역, 정치, 그리고 사회복지와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¹⁾ 「기독교강요」를 근거로 하여 교회론을 분석한 논문들은 대개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기능, 직제 등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 위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황정욱, “교회론,” 『칼빈신학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오갑, “교회론,” 『칼빈신학과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배경식, “교회정치,” 『최근의 칼빈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최운배, “칼빈의 교회직분과 교회권위에 관한 연구,” 『칼빈연구』 제4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안은찬, “칼빈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칼빈연구』 제6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박경수, “칼빈과 교회일치,” 『칼빈 그 후 500년』(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등이다.

교회의 본질로는 구조적인 본질과 차원적인 본질로 나누어서 전자는 신자들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었고, 후자는 교회의 유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세계성을 다루었다.²⁾

교회의 기능으로는 목회와 선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봉사과 진리, 사랑과 성장의 공동체로³⁾ 표현되기도 하였다. 교회의 직제로는 만인 사제직과 사역의 직무를 나누어서 전자는 평신도에 관한 것을 다루었고, 후자는 개혁교회의 삼중 직무인 목사와 장로, 집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오늘 한국의 개신교회가 한국사회에서 구원의 안내자,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잘하려면, 그것은 건물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지체이자 구성원인 성도들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비판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한국교회 안에 바른 신앙과 신학이 변질되어 교회의 본질(本質)보다 기능(機能)에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본질에만 매달려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은 칼빈이 말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사귄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자들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보려 한다. 동시에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통해 한국교회에 주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안적인 비판과 함께 몇 가지 제안한다.

2. 구원의 안내자 교회

칼빈에게서 교회는 구원의 바른 안내자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

2) 박근원, “칼빈의 교회론,” 한국신학대학출판부,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 기독교서회, 1978), p. 167.

3) 황대우, “칼빈의 교회론,” 한국칼빈학회, 「칼빈 1: 칼빈신학개요」(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p. 145ff.

이 없다. 여기에서 칼빈이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고 한 것은 교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가톨릭의 교리개념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인 것이다.⁴⁾

구원의 기관인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 영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한 책임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어느 한 개인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곳에 교회가 성립된다.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은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제도인 로마교회와 성직자들을 말한다. 구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서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신비한 기관이다. 여기에서 신비라 함은 “교회의 본질이 신적 기원이며 초월적이며 또한 구원의 도구”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 인류를 포함하는 만민의 빛(*lumen gentium*)이 되는 것을 말한다.⁵⁾

이에 반해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은 교회라는 건물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도직의 계승으로서의 성직 제도를 말하며, 개신교는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한 신앙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있다(마 28:20).⁶⁾

4)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p. 459.

5) 박양운, 「가톨릭 신학의 어제와 오늘」(기초 신학을 중심으로)(서울: 가톨릭출판사, 1996), p. 12.

6) 배경식, 전개서 263쪽. 칼빈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엘리야의 광야교회(왕상

3. 교회의 본질

칼빈이 추구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로마가톨릭교회를 개혁하여 복음에 충실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 전통적인 교회의 신조에 충실하면서도 신약시대의 교회에 충실한 성경적인 교회였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그의 「기독교강요」 제4권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20장으로 구성되는데, 참된 교회와 비교하면서 14장을 할애하여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교황제도를 통해 교회의 순수성이 파괴되었다는 것과 미사는 성찬을 더럽히는 모독 행위로서 일종의 판매행위(The sale of masses)이며,⁷⁾ 그리고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례로 간주되는 견진례와 고해성사, 혼인, 신품, 중부성사 등의 다섯 가지를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귄’에서 찾는다. 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이 된 공동체이며(행 4:32),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몸(엡 4:4)이다. 사도신경에서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신자들은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⁸⁾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을 성도의 사귄이라고 한다. 성도의 사귄으로서의 교회는 1) 신자들의 어머니, 2)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3)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1) 신자들의 어머니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 1장의 제목을 “참된 교회”로 정하고서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라는 부제목을 정한다.⁹⁾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¹⁰⁾ 이 말은 키프리안이 처음 사용한 말로써¹¹⁾ 어거스틴 이후 로마교회에서 교회의 절대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해 오던 용어로서 교황권 확립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부른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말한다. 어머니로서의 가시적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신앙의 훈련장

칼빈이 사용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의 훈련장으로서 교회 구성원들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한 말이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로마교회와는 달리, 개신교 교회는 어머니가 자식을 훈련하듯 신자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회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보다는 구원을 이루는 신앙공동

19:10 이하) 예를 들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참 교회라고 한다.

7) 존 칼빈, 「영한 기독교강요」, 편집부 번역(서울: 성문출판사 1993), 제4권 18장 14절, 871쪽 이하; 이후 인용은 *Inst.*, IV, xviii, 14, p. 871로 명기함.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반복적인 미사의 참석이나 자선행위, 그리고 기부 등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았다.

8) *Inst.*, IV, i, 3, p. 17. 각주 참조: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1. 교회는 하나

님의 선택에 의해 존립하며, 2. 그리스도의 영원불변하심에 연결되어 있으며, 3. 구원의 약속인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9) *Inst.*, IV, i, 1, p. 9f. 칼빈은 인간의 무지하고 게으르고 죄악 된 본성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위해 교회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10) *Ibid.*, p. 11.

11) Cyprian, *On the Unity of the Church* VI (CSEL 3, 1, 214). J. L. 니브, O. W. 헤이크,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p. 164.

체를 말한다. 신자들은 교회의 생도들이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어떠한 구원도 바랄 수가 없다(사 37 : 32 ; 율 2 : 32).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주는 영적 양식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기에 합당하다.¹²⁾ 이렇게 교육 훈련을 강조한 칼빈의 교회관은 제네바교회에서는 물론, 그 후 개혁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¹³⁾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¹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양육받지 못하고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자는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¹⁵⁾

칼빈이 추구한 교회는 단순히 주일예배나 종교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교육공동체였다. 그가 추구한 기독교교육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중심 내용인 교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경건하고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¹⁶⁾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로서 가시적 구원의 기관이다. 교회는 신자를 낳으며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이것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가시적 교회는 성도들의 사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기도 하다.

12) *Inst.*, IV.i.4, p. 19.

13)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 : 기독교서회, 1978), p. 167.

14) *Inst.*, IV.i.4, p. 19.

15) *Inst.*, IV.i.10, p. 35f. 이런 면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하나님의 집'(딤후 3 : 15)이다. 진리의 파수꾼이다.

16) 오형국, 『칼빈의 신학과 인문주의』(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6), p. 249.

(2) 말씀선포의 장

칼빈은 말씀의 선포를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그는 참 교회의 지표를 말할 때에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을 들고 있는데, 성례전도 말씀에 근거를 두고 집행되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함을 돕기 위해 주신 가시적 교회이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의 출생과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선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칼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목사들과 교사들을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세운다고 하였다(엡 4 : 10-13).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제사장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율법의 참된 뜻을 가르치신 것처럼, 지금도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들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 중의 은혜이다. 칼빈이 말하는 특별한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우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는 순종이며, 다음은 이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이끄신다.¹⁷⁾ 말씀에의 순종을 통해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예언자들과 목사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비유하면서, 복음 선포의 직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7) *Inst.*, IV.i.3, p.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광신자들과 배교자들이다. 전자는 자만심이나 거부감, 경쟁심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며, 공중집회를 열사하고 설교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연합의 거룩한 유대를 끊고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후자는 배교자들이다. 이들은 광신자들보다 더 가증하고 악하다고 본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양들을 이리의 입에 던지는 사람들이다.¹⁸⁾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진리에서 떠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다.

칼빈이 이렇게 광신자들과 배교자들을 경계하고 주의를 두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연합이 교회의 복음 선포와 훈련에 기초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직 외적인 복음 선포에 의해서만 성장하며 성도들은 한 공동체로 결합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배움과 발전을 통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질서를 지킨다는 것이다”(엡 4:12 참조).¹⁹⁾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성소 앞에 백성을 모았으며, 다윗 역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는 길이 원수들에 의해 막혀 있음을 애 통해 하였다(시 84:2-3). 칼빈은 이러한 예들을 들면서 공중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예배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신다는 것이다.

(3) 불가시적 가시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둘째, 성령의 성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이를 종합하면,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

18) *Inst.*, IV.i.3, p. 23f.

19) *Inst.*, IV.i.3, p. 25.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다. 성도들은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며,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연합을 증거하게 된다. 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가진 위선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야심과 탐욕과 시기에 찬 사람들, 그리고 중상 모략하며 불결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회 안에 남아 존립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강력한 규율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법과 질서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가시적인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불가시적 교회와 연관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히 여기고 성도들과의 사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표지(the mark)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지켜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²⁰⁾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례전이 교회의 표지이다. 칼빈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마 18:20)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개별교회를 설명한다. 이러한 개별교회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은 여러 도시와 촌락에 세워져 각각 지교회라는 이름과 권위를 가지며, 그 안에 속한 교인들은 보편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다.

교회 중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다. 이것이 불가시적인 교회이다. 가시적인 교회는 외형적인 틀을 갖는 현재적인 교회이며,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교회이다. 불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 완

20) *Inst.*, IV.i.3, p. 33.

전한 구원을 이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한다.²¹⁾ 이런 면에서 가시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칼빈의 교회관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가시적인 교회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구원을 이룬 교회를 말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불가시적 가시교회’이다. 구원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제도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구원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전자의 교회는 가시적 가시교회이며, 후자는 불가시적 가시교회를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머니로서.”라고 말한다.²²⁾ 결국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돕기 위해 주신 불가시적 가시교회이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의 출생과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다.

2) 그리스도의 몸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다.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²³⁾(엡 4:16 참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교한 교회의 본질을 말한다(엡 1:23, 5:23-30). 그리스

21) *Inst.*, IV.i.3, p. 31. 각주 14. 선택된 모든 자들의 불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은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위클리프(Wycliffe)에게서 자주 인용되었다.

22)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74.

23) *Inst.*, IV.i.2, p. 15.

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영적인 연합성을 잘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산 교회(행 20:28)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신앙인들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 이후 특히 존 위클리프와 요한 후스에게서 구체적으로 보이며,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²⁴⁾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톨릭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 이러한 사고가 교황의 사도 계승권까지 비약하게 되었다. 교회의 영구적인 수위권이 베드로에게 인정되었으므로, 로마에 세워진 베드로의 교구가 전 세계를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교황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전 세계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이다.

칼빈은 이에 반해 교황이 가시적인 제도권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강조한다. “온 세계가 한 군주하에 포용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전혀 터무니없는 가톨릭교도들의 생각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²⁵⁾ 칼빈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이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며 이 영예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대리로 임명하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에게서도 그것이 이양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엡 1:22; 4:15; 5:23; 골 1:18; 2:10).²⁶⁾ 이를 종합해 보면, 가톨릭교회는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반화

24) Otto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7), p. 597.

25) *Inst.*, IV.vi.9, p. 207.

26) *Ibid.*

시켜 놓고서 마태복음 16 : 18을 근거로 하여 지상교회의 대리자는 베드로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성경해석에 관한 큰 오류이다. “베드로는 자신과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²⁷⁾ 바울의 말을 빌리면 교회의 터와 기초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리스도이시다(고전 3 : 11).

어떻게 베드로의 로마 중심 수위권이 주장될 수 있는가? 과연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고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 교구가 세워져 그곳의 감독인 교황이 온 세계를 관장할 수 있는가? 칼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사요,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었으나, 광야에 지상권자의 교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든다(신 34 : 5).²⁸⁾

칼빈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오시는 영역이 바로 이 교회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 : 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 4 : 15) 서로 한 몸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한 교육과 그 가치와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말해 준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27) *Inst.*, IV, vi, 6, p. 201.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는 마태복음 16 : 18의 해석에 대해 그렇게 해석한 교부들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28) *Inst.*, IV, vi, 11, p. 211.

현재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²⁹⁾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서 1) 그리스도의 통치, 2) 성도의 사귄, 3)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

(1) 그리스도의 통치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에서 여러 장에 걸쳐 로마교회의 교황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칼빈은 교황제도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된 사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황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칼빈은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온 세계가 한 군주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선하고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 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정치 형태에 따라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머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한다.”³⁰⁾ (엡 4 : 15-16).

교회는 어떤 한 책임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어느 한 개인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사려 깊게 준수되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과 의식과 제사에서 저지른 맹목과 불경건, 그리고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종교적 가장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용되는 것

29)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 「신학정론」 제6권 1호(1988), p. 9.

30) *Inst.*, IV, vi, 9, p. 207.

이 예레미야 말씀이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 7 : 4)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성전에 임재하시며,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자신의 처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사악한 미신으로 인해 예배가 부패되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율법이 시내 산에서 주어진 것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왔다.³¹⁾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용서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교회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져 양자로 인침을 받는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관용과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한 성화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고 또 매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³²⁾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이삭의 선택에서 분명히 보여진다(창 21 : 3).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스마엘 역시 할례를 받았고, 그는 만아들이었으나 거부되었다. 이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합법적인 근원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롬 9 : 6-8).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손이다.³³⁾ 이를 통해 칼빈은 주교들의 인간적인 조직과 교부들의 계승을 통한 상속권으로서의 교회를 거부한다.

(2) 성도들의 사귄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사귄’(The communion of the saints)³⁴⁾이다. ‘사귄’이라는 말은 ‘교통’이나 ‘교제’라는 말로도 번역

31) *Inst.*, IV, ii, 3, p. 73f.

32) *Inst.*, IV, ii, 1, p. 57.

33) *Inst.*, IV, ii, 3, p. 75.

34) *Inst.*, IV, i, 3, p. 15.

이 되지만, 한국적인 표현은 ‘사귄’이 더 좋을 듯하다. 신앙 안에서 자신들이 형제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성도들의 사귄은 사도신조에서도 잘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지체들로서 결합된 몸이기 때문에 형제애로 받은 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엡 4 : 4)는 말과 같다.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 형제애를 가지고 사귀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든 서로 나누는 원칙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³⁵⁾라고 말한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은사들을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勸慰), 구제, 다스림, 공홀 베품(롬 12 : 6-8)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고전 12 : 8-10)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엡 4 : 11) 등이 있다.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면 서로 각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은 각자 부족한 은사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함이며, 이것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bond)라고 말한다. “은사가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오도록 하려 함인데 여기에 교제의 끈이 있다.”³⁶⁾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는 것에서 참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베드로는 “손 대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은사라고

35) *Ibid.*

36)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Mackenzie(trans.)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 268.

말한다(벧전 4:9-11).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한다. 이렇게 형제애로 연합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는 유익이 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의 영원불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존재한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불변함에 연결되어 있다. 3) 구원의 약속을 준다(골 2:32).³⁷⁾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교회가 존립하기에 흔들리거나 파멸되지 않으며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교회는 시온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체 된 성도들이 서로 확인하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각양 은사를 통해 나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칼빈은 무엇보다 교회를 믿음의 영역으로 보았다. 교회의 연합을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버림받은 자(the reprobate)와 선택받은 자(the elect)가 섞여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³⁸⁾ 이를 통해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는 연합하여 있으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다. 전자에서 우리는 '교회의 단일성'을, 후자에서는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사귄'을 보게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머리 됨과 성도의 사귄과 질서를 강조한다. 성도의 사귄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체인 성도들의 머리

37) *Inst.*, IV.i.3, p. 17.

38) *Ibid.*

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의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 없다."³⁹⁾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communio sanctorum), 즉 '성도들의 사귄'이다. 칼빈이 성도들의 사귄으로서 교회를 강조한 것은 사도신조의 교리를 개인 신앙의 기본교리로 가져온 것뿐 아니라 이 교리에서 멀어진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를 두 개의 계급, 곧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눈다. '가르치는 교회'는 바티칸의 교황을 중심한 추기경단과 사제단을 말하고,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들을 말한다.⁴⁰⁾ 이 두 계층의 계급구조와 의식은 군대식이며 '배우는 교회'는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천주교의 왜곡된 교회관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사제주의'를 거부하고, '만인제사장주의'(벧전 2:9)를 회복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the one catholic church)이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에 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말씀으로만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

39) *Inst.*, IV.i.3, p. 17.

40) 가톨릭교회는 마태복음 16:19과 18:19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해석한다. 전자는 베드로의 수교권을, 후자는 사도들의 수교권으로 보면서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말하며, 주교들의 단체인 사제단이 교황과 연결되어 보좌를 같이할 때에만 권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참조: 박양운, *op. cit.*, p. 191.

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⁴¹⁾

가톨릭교회의 성경관에 의하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교황청과 사제단이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그 권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외경이나 위경이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래서 성경의 권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칙서나 사제단의 지침서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된다.

칼빈은 교회의 존재 근거를 철저히 성경말씀에 두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로서 단단히 결합될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기초를 둔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교회도 둘이나 셋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므로(엡 1:22-23) 한 머리에 의 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처럼(롬 12:5; 고전 10:17, 12:12, 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 4:16).”⁴²⁾

칼빈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사귄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는 원칙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⁴³⁾ 라는 것이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물론, 재물까지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가톨릭교회가 초대 교회가 지니고 있던 그리스도의

41) *Inst.*, IV.ii.4, p. 79.

42) *Inst.*, IV.i.2, p. 15.

43) *Inst.*, IV.i.3, P. 15.

몸으로서 서로 떡을 떼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주는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교회가 나눔을 통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한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기대하는 봉사에 있어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호의존으로 교회에 대한 개인의 파괴적인 주권행사가 제거될 수 있다.”⁴⁴⁾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서 형제로서의 상호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때 단지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가장 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 1:22-23 참조)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롬 12:5; 고전 10:17, 12:17, 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 같이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 5:30).⁴⁵⁾ 우리는 개인으로나 공동체로서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며, 또한 이 고백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칼빈이 가톨릭교회의 교황을 신격화한 교리와 교권의 절대화를 배격하면서 로마교회의 오류를 지적하고, 참다운 교회는 ‘성도들의 사귄’이라고 주장한 것은 보이는 교회로서의 절대권을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격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교황과 사제단을 정점으로 하는 인간적인 제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성도의 사귄’인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마 18:20).

44)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188.

45) *Inst.*, IV.i.2, p. 15.

46) *op. cit.*, p. 22.

(3) 성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의 교회는 지체 된 신자 모두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결합하는 긴밀한 사귄 속에서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의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순종이 있고, 성도들의 지체 됨과 모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갖는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성립된다고 칼빈은 말한다.⁴⁷⁾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형성된 생명의 결합과 인격적인 상호관계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현재 교회 안에 살아 있고,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를 먹이고 다스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⁴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가시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아직 완전하거나 충만한 어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성숙해지는 것”⁴⁹⁾을 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살피는 신앙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교황이 목

47) 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5), p. 56.

48) 오영석, 「조직신학의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p. 252.

49) J. Calvin, T. H. L. Parker(Trans.),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74), p. 184.

회사역에서 유일한 머리라고 한다. 칼빈은 이것을 비유하기를 “교회에 혹은 한 개 더 달아 교회의 균형을 깨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말한다.⁵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서 실존하는 동시에 온 우주를 포괄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교회 자체에 있지 않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한다(골 1: 20). 교회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든 피조물 안에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칼빈은 사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칭하며, 그들이 사도이므로 보내신 이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말한다. 주님 역시 자신이 전한 교훈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다(요 7: 16). 그러므로 교회의 권한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며 주의 말씀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⁵¹⁾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며 왜 성장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외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내적 성장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사귄 때 일어나며, 외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 선포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일어난다(골 1: 20).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몸 된 피조물 속에 세우는 데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아픔, 눈물,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메시아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과 사

50) Ibid., p. 184f. 이러한 칼빈의 비유는 에베소서 4: 17의 주석에서 보여지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

51) *Inst.*, IV.viii.4, p. 291.

회, 전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거룩한 교회로 개혁될 것을 믿는다.⁵²⁾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면서 성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경건생활과 성례전의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소유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공동의 덕을 세우며, 이때 공동의 예의와 질서가 유지된다. 성장하는 교회는 경건의 훈련장으로서 교회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한다.

교회성장은 왜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성장의 필요성은 교회가 갖는 불완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완전을 추구하며, 이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는 말이며,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하고 거룩한 교회이다.

칼빈은 불완전한 대표적 교회로 고린도교회를 예로 든다.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까지 타락한 고린도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할 바울의 입장을 들어 카타리파와 도나투스파, 그리고 재세례파들을 비난한다.⁵³⁾ 여기에 드는 성경의 비유들이 그물과 밭, 타작마당이다. 그물로 비유된 교회 속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으며(마 13 : 47-48), 밭에 가라지들이 추수 때까지 자라고 있으며(마 13 : 4-30), 타작마당에서의 알곡은 쭉정이 속에 들어 있다(마 13 : 12).⁵⁴⁾ 이 모든 것이 가려질 때까지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는 말씀이라는 자양

52) 오영석, op. cit., p. 273-274.

53) 참조 : J. L. 니브, op. cit., p. 208. 도나투스파는 교회가 참된 성도들의 집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감독은 사도들과 같이 성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바시안파(Novatians)도 신도들의 성결을 주장하였으며, 몬타누스주의자들(Monatnists)은 출교당한 자들의 재입교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314년 알레 종교회의(Synod of Arles)에서 논의되었다.

54) *Inst.*, IV.i.13, p. 41f.

분을 먹으며,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심판의 마지막 때에 구별된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3) 하나님의 백성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의 “공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조항을 들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가시적 교회뿐 아니라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⁵⁵⁾을 의미한다. 즉, 가시적인 교회의 일부를 포함하는 불가시적 교회를 말한다. 칼빈이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믿으니 그것은 보편적으로 선택받은 자의 수이다.”⁵⁶⁾ 교회는 천사나 사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그리고 국가와 종족에 관계없이 선택받은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⁵⁷⁾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다.⁵⁸⁾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은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선택을 교회의 기초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 : 19),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 치심으로 품 안에 모으신다(엡 1 : 13). 적은 수의 사람이 대중 속에 숨겨지고 몇 알의 밀알이 쭉정이 더미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를 아시는 것이다.⁵⁹⁾

칼빈이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두

55) *Inst.*, IV.i.2, p. 11f.

56) O. Weber, op. cit., p. 46.

57) 신복윤, op. cit., p. 18.

58) O. Weber, op. cit., p. 47.

59) 신복윤, op. cit., p. 18-19.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담겨져 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의 신앙공동체라는 점들이다. 이 두 가지는 당시 가톨릭교회가 경시하던 것들이었다. 칼빈은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교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회 개념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행위를 내세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 부르심’이다.⁶⁰⁾ 그리고 이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딤후 2:19), 인을 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름받은 지체들의 연합된 교회에 확실히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의 확신이 필요하다.

니젤(W. Niesel)은 칼빈의 선택 교리는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 필요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저항력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선택된 교회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죽은 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⁶¹⁾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가시적 불가시교회가 지상에서의 참된 교회이다.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이 연합된 교회에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선택받은 자들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차 받을 기업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⁶²⁾ 지체들은 하나가 되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생의 부르심을 힘입어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인 침을 받았기 때문이다(엡

60) *Inst.*, IV.i.2, p. 13.

61) W. Niesel, *op. cit.*, p. 190.

62) *Inst.*, IV.i.2, p. 14f.

5:30).⁶³⁾

가톨릭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만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마테오 리치(1552-1610)가 중국 유교의 상제 사상과 삼강오륜을 그리스도교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나 로베르토 데 노빌리(1577-1695)가 힌두교의 브라마 신을 그리스도교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 등이다. 타 종교에 속하여 창조주를 믿지는 않지만 어렵פות이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⁶⁴⁾ 이것은 칼빈의 신학과 전혀 배치되는 주장이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가톨릭교회가 조상숭배를 한국의 미풍양식으로 허용한 것과 연관이 된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에 있다.”⁶⁵⁾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비유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양을 알며 양은 목자를 따른다는 것이다(요 10:27). 여기에서 거론되는 목자의 음성은 교회의 표지(mark)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말한다. 교회의 표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시적인 교회에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딤후 2:19). 하나님의 비밀한 판단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바른길로 돌아오며, 누구보다도 든든히 서 있던 사람들이 넘어진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따라 “밖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 그리고 성례에의 참여를 통

63) *Inst.*, IV.i.2, p. 15.

64) 박양운, 「가톨릭 신학의 어제와 오늘」(기초 신학을 중심으로)(서울:가톨릭출판사, 1996), p. 206ff.

65) *Inst.*, IV.ii.4, p. 79.

해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칼빈의 교회론의 위치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교회의 회복과 건설’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 ‘교회의 신학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⁶⁶⁾ 루터와 칼빈의 차이라면 전자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grace)에 강조점을 두었고, 후자는 자신의 교회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말로 개신교회를 변호했으며, 개신교회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라는 칭호를 받는다.⁶⁷⁾ 이런 면에서 칼빈의 교회론은 자신의 종교개혁이 분파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는 것임을 보여 주는 변증적인 성격을 가진다.

1) 교회회복과 변증

칼빈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은 칼빈을 제2세대 종교개혁자로 규정하며, 개혁의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개신교회의 로마교회로부터의 분리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때 독자적인 교회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칼빈이 직접 개혁의 정당성을 신성로

마 제국의 황제 카알 5세를 포함한 귀족들과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종의 개신교 ‘변증적 협정문서’(Apologetic Treatise)⁶⁸⁾를 작성하였다. 이때 슈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마르틴 부처(M. Bucer)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부처는 1543년 10월에 보낸 편지를 통해 칼빈이 직접 1544년 2월에 열릴 슈파이어(Speyer) 종교회의에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분파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권고하였다. 그 회의에서 칼빈은 개신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영주들이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종교개혁을 지지해 달라는 교회 정치적인 희망을 담은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⁹⁾

이 문서에서 칼빈이 지적한 가톨릭교회의 교회개혁의 필요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대신 마리아나 성인들, 심지어 성물들까지를 숭상하는 타락한 예배, 둘째, 구원교리에 있어서 이신칭의와는 달리 인간의 선행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공덕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신앙내용, 셋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이외의 성례들을 거부하고, 넷째, 가톨릭교회의 성직매매나 사제들의 타락, 잘못된 교회정치, 성직자 독신제도 등을 통해 보여지는 영혼에 대한 폭정 등을 심각하게 다루었다.⁷⁰⁾

이러한 해악들에 대해 칼빈이 제시하는 치료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신앙적 관습과 표준에 근거한 것이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다. 교황주

66) 참조 : 황대우, “칼빈의 교회론,”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개요』 I,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서울 : 두란노아카데미, 2009).

67)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빈』(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p. 65f. 칼빈의 이 논문은 「기독교 고전문서 시리즈」 XXII 권, 『칼빈 : 신학적 협정문들』(Calvin : Theological Treaties)이라는 책 안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최근 발간된 『칼빈연구』 제7집에서 “교회개혁의 필요성과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함께 담보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68) 박경수, “칼빈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제7집(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p. 29-44.

69) Ibid., p. 29f.

70) J. K. S. Rei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Vol. XXII,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London : SCM Press LTD, 1954), p. 188ff.

의자들이 주장하는 사도들의 권위 계승에 관해서는 사도적 신앙과 진리가 우선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였다.

칼빈의 이 문서는 카알 5세로 하여금 국가가 주도하는 공의회를 약속하였으며, 교황 바오로 3세가 1544년 “아버지로서의 충고”(Paternal Admonition)라는 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칼빈의 교회론은 로마가톨릭주의자들의 개신교회를 향한 비난에 대한 의미 있는 변론인 동시에 개신교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의미 있는 저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칼빈과 한국교회

칼빈의 교회론에 비추어지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로 내부적으로는 군소교단의 자격이 없는 무분별한 교역자의 양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리신학과 윤리관의 부재, 기독교신앙과 삶의 괴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소통이 결여된 교회⁷¹⁾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점들이다. 목사의 직이 한국사회에서 통념으로 여겨지는 구별된 직책이 아니라 자격증 시대에 하나의 자격증을 따는 듯한 인

71) 이 글은 2010년 1월 31일 자 김동호 목사가 평광교회에서 마태복음 5:13~16을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인용하였다. 교계일 반자로 1022번이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 수는 늘고 있으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인지도는 타 종교의 성직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교회 내부에서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이유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세상과의 불통이라는 것이 김동호 목사의 주장이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기업과는 달리 세상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공감을 얻어 내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감동을 얻어 내겠다는 의식과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가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의 상반된 대조적인 면을 비교하면서 근거를 대는 것은 1984년 개신교 전파 100주년과 가톨릭 전파 200주년의 기념사업에 관한 것이다. 개신교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교단별로 경쟁적으로 건축했으나, 가톨릭교회는 맹인들을 대상으로 개안수술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식이 만연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인 ‘신앙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다양한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 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법과 질서가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가 가지는 자체 문제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연유한다.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존 낙스 등은 자신들이 개혁 운동을 하던 지역에서 신앙생활의 내용을 담은 대·소요리문답과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지침 등을 만들어 교인들로 하여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딤후 3:14) 신앙적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였다.⁷²⁾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일부 교단에서는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 지 6개월 만에 받는 학습제도를 없애 버리고 직접 세례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교회에서의 다양한 직책들이 계급서열화가 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는 교인들의 신앙을 약화시켜 버리며, 심지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반해 가톨릭교회는 청소년들이 영세를 받기까지 1년간 교리공부에 엄격하게 참여해야 하며,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사도 신자들에게 일종의 의무화가 되어 실제적으로 가톨릭신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찾는 통계가 개신교보다 높다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인 예이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명목상의 이름을 갖는 ‘익명의 교인들’⁷³⁾이 가톨릭교회보다 개신교 안에 더 많은 듯 보인다.

72) 요한네스 칼빈, 박위근, 조용석 편역, 제네바교회의 교리문답(서울: 한들출판사, 2010), 장 칼빈, 한인수 옮김, 칼빈의 요리문답(서울: 경건신학연구소, 1995) 참조.

73) ‘익명의 교인들’(Der anonyme Christ)이라는 용어는 칼 라너(K. Rahner)에 의해 사용된 말이다. 이것은 사상의 전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이것을 위한 그의 주요 방법론은 선험적 연역이다. 그의 신학은 종교적 선험성의 신학으로 불린다. 인간의 심성에 보여지는 종교심을 익명의 교인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닐 오베로드, 정재현 역, 「오늘의 신학과 신

칼빈이 말하는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는 신앙의 훈련장으로서 교회의 양육과 교육의 사명을 강조한 말이다. 가부장적 권위를 강조했던 로마교회와는 달리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훈계로 양육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교육과 훈계, 양육과 훈련을 강조한 그의 교회관은 제네바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한국교회 안에서 시행하는 것은 향후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통치하는 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된다는 이 말은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 중의 하나이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나 권사, 집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상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는 견해와 필수적으로 결부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⁷⁴⁾

한국에는 각 교단을 대표로 하는 세계 제일의 대형교회들이 즐비하게 있으며, '기독교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오는 2013년 우리나라 부산의 벡스코(BEXCO)에서 열리게 됐다. 6년마다 열리는 WCC 총회는 개신교계의 시대적 과제와 신학적 방향을 설정하는 행사인 만큼 한국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

학자들(서울: 한들출판사, 2007), p. 118ff.

74)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187.

75) 세계교회협의회(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말하며, 교회들의 하나 됨, 공동의 신앙고백, 섬김의 봉사를 추구하는 140개국 349개 교단, 5억 8,000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에큐메니컬 기구를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도교에서는 세계적으로 '교회일치운동'이라고 번역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 모든 교회가 협동하여 사회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생활과 사업을 일으키자는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세계 모든 교회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며 연합을 저해하는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신앙과 질서 운동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조

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⁷⁶⁾

직은 통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1937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신앙 및 직제협의회와 옥스퍼드에서 개최한 생활과 실천협의회에서는 두 조직을 합쳐 단일 협의회를 결성하자는데 동의하였다. 1938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에큐메니컬 운동가들 중심으로 새 협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모여 협의회 헌장 초안을 작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가 구성원이 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1948년에 이르러서 제1차 총회를 열 수 있었다. 이러한 교회통일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150여 개 교회가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결성한 이 협의회가 본격적인 운동으로는 최초였다. 조직으로는 총회, 실행위원회와 기타 실무진들이 있다. 총회는 의사결정기구로 세계 각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략 6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여기서 중앙위원들을 임명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선출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실행위원회는 전문위원들과 공동의장 6명이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은 교회 관계 분과, 에큐메니컬 연구·촉진 분과, 난민에 대한 교회 상호 간 지원과 봉사 분과의 3개 분과로 나누어 실행한다. 각 분과 밑에는 신앙·직제 위원회, 교회 내 평신도의 생활과 실천 및 교회·사회에서 남녀 협동에 관한 위원회 같은 많은 소모임과 위원회가 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인 천국건설을 목표로 교회의 혁신을 모색하며, 각 교회·교파 간의 대립·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세계교회연합운동을 벌인다. 이 단체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며 기도하고, 관용과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협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장로교회, 브라질 오순절교회, 러시아정교회,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케냐 감리교회, 미얀마 침례교회, 파푸아뉴기니 연합교회 등이 가입하고, 로마가톨릭교회와 남침례회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의 4개 교단이 가입하였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주소는 P. O. Box 2100 CH-1211 Geneva 2 Switzerland이다.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교회협의회총회보책자」(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0),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76)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들어 보면, 1. 주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공의를 말하지 않음으로 죄에 무뎠다. 2. 교회 내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학습이라는 과정이 없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3. 교회의 성장을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여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4.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도 이반트성 행사에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5. 교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보다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한다. 왜 한국

2006년 5월 정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감소되었고, 가톨릭은 74.4%인 2백 19만 5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교는 3.9% 증가했다고 하는데,⁷⁷⁾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주된 이유로는 “외형에 치중, 직분에 대한 자리싸움, 현금강요와 교세확장에 몰두,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용서와 화해가 없다는 것”⁷⁸⁾ 등이었다. 이에 반해 가톨릭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긍정적인 접근성 요인으로는 “가톨릭의 결속력과 청렴성, 정의와 인권활동, 조상제사와 장례예식에 대한 유연한 태도,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⁷⁹⁾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집고 싶은 것은 우상을 섬기는 조상숭배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태도 변화와 유연한 선교 정책은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⁸⁰⁾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는가? 1. 교파 간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2.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간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3.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섬기지 않는다. 4. 기업화된 대형교회들의 교회문턱이 너무 높으며 세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5. 국가의 권위나 제도에 순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면 여행 자제 지역에 선교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77) 김수진, 노남도 공저, 「어둠을 밝힌 한국교회와 대각성운동」(서울: 쿤란출판사, 2007), p. 394; 「기독교연합신문」, 2006년 12월 10일 자, 「기독교공보」, 2006년 12월 9일 자. 통계청이 2006년 5월 25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04만 1,000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구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1%(2,497만 1,000명)이고, 종교별로는 불교 22.8%(1,072만 6,000명), 개신교 18.3%(861만 6,000명), 가톨릭 10.9%(514만 6,000명), 원불교 0.3%(13만 명), 유교 0.2%(10만 5,000명) 순이었다. 가톨릭 인구는 95년 295만 1,000명에서 2005년 514만 6,000명으로 74.4% 증가라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10년 새 219만 5,000명이 늘었다. 이는 인구 증가분 5.6%를 13배 이상 초과한 수치로 경이적인 기록이다.

78) Ibid.

79) 「교회연합신문」, 2006, 12월 10일 자.

80)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p. 59f. 서학과의 접촉을 통해 전래된 가톨릭교회가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과 권상연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보수한다고 해서 제사를 폐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는 사건이 생겨나자, 조야는 이를 패륜의도로 규정하고 멸기탄상의 죄목으로 이들을 참형하는 1801년 신유교난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가톨릭교회는 1839년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 보여지는 한국교회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보다 교역자 자신과 개신교 교인들의 확고한 신앙정립이 최우선적이다. 신앙정립에서 전제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⁸¹⁾ 라는 칼빈의 신앙고백적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칼빈이 말한 교회의 본질은 신자들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와 비교해 보았다. 칼빈은 교회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말로 개신교회를 변호했으며, 개신교회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라는 칭호를 받는다.⁸²⁾ 이런 면에서 칼빈의 교회론은 자신의 종교개혁이 분파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는 것임을 보여 주는 변증적인 성격을 가진다.

칼빈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귄’이라고 한다. 성도의 사귄으로서의 교회는 1) 신자들의 어머니, 2)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3)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

을 기해 대교난, 1846년 병오, 1866년 병인교난을 거치기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수십만의 교인들이 옥에 갇히고 귀향을 가고 심지어 단두대의 처형을 받았는데, 조상제사와 장례예식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타 종교와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어중간한 신앙적 행동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 개신교 신앙을 보수하려는 사람들 이외에는 모든 종교가 거의 다 조상숭배를 한국의 전통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타 종교의 신앙적인 태도를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톨릭의 어중간한 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신교와 다른 타 종교라는 이질감을 가진다.

81) *Inst.*, I, i, 2, p. 64.

82)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p. 65f.

님께서는 인간의 무지와 태만과 나약함 때문에 외적인 보조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속활동을 하신다. 교회는 구원의 안내자이다.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훈련의 장으로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한 말이다. 신자를 낳으며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신자들은 교회의 생도들이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어떠한 구원도 바랄 수가 없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톨릭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 이러한 사고가 교황의 사도 계승권까지 비약하게 되었다. 교회의 영구적인 수위권이 베드로에게 인정되었으므로 로마에 세워진 베드로의 교구가 전 세계를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에 반해 교황이 제도권의 가시적인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강조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서 1) 그리스도의 통치, 2) 성도의 사귄, 3)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communitio sanctorum), 즉 '성도들의 사귄'이다. 칼빈이 성도들의 사귄으로서 교회를 강조한 것은 사도신조의 교리를 개인신앙의 기본교리로 가져온 것뿐 아니라 이 교리에서 멀어진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를 두 개의 계급, 곧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눈다. '가르치는 교회'는 바티칸의 교황을 중심한 추기경단과 사제단을 말하고, '배우는 교회'는 소위 평신도들을 말한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천주교의 교회관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사제주의'를 거부하고, '만인제사장주의'(벧전 2:9)를 회복하였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의 교회에서는 지체된 신자 모두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결합하는 긴밀한 사귄이 필요하다. 이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교회의 내적 성장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사귄 때 일어나며, 외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 선포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피조물 속에 세우는 데 있다. 칼빈의 제네바개혁에서 시도한 '교회의 정치화와 정치의 교회화'⁸³⁾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칼빈이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담겨 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의 신앙공동체라는 점들이다. 이 두 가지는 당시 가톨릭교회가 경시하던 것들이었다.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말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소통이 결여된 교회'이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자체의 문제들로서 군소교단의 자격이 없는 무분별한 교역자의 양산, 교회 안에서의 건전한 교리 신학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1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은 거대한 대형교회의 독식위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더욱 취해 갈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재가(在家)신자의 폭발적 증가와 교회 구성원들의 노령화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 새 술에 맞는 새 부대의 교회가 요구되고

83) Kyung-Sik Pae, "The Predestination of J. Calvin and Ethical Management", Master of Business Academy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7, p. 101ff.

있다.

한국이 이슬람의 공격적 포교대상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접한다. 아시아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무슬림의 전진기지로 한국, 그중에서도 대학이 꼽히고 있다. 한국의 이슬람 교도가 14만 명을 넘으면서 급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신성을 부인하며(꾸란 6 : 101), 삼위일체를 부인하며(4 : 171, 5 : 7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부인하며(4 : 157-158)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계시(5 : 51, 9 : 29, 98 : 6)를 말하는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집단 중의 하나이다.⁸⁴⁾

칼빈을 통해 보여지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은 교회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님의 공생애의 첫마디가 “너희들 회개하라.”(*penitentiam agite*, 마 4 : 17)였다는 점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칼빈을 통해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교훈이자 의미이다.

|| 주제어 ||

교회의 본질, 성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소통이 부재된 교회, 교회의 교사, 변증적 성격, 성도의 사권, 신앙의 학교, 가부장적 권위, 그리스도의 몸, 사도적 계승, 로마 교황, 성도의 사권, 만인제사장직

Abstract

The essence and the meaning of the church

by J. Calvin

Pae, Kyung-Sik, Dr. Theol.

Professor,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Hanil University

In this thesis we explore the essence of the church as containing 3 components, i.e. the church as the mother of the saints, the body of Christ, and the elected people of God, comparing it with the Korean church situation. The representative word, which express the Korean church is ‘the interrupted church in communication’. The pastor is no longer viewed as sacred clergy but as one who holds a license. Pastors were regarded as reverends in Korean society until 1980, but their reputation has fallen to a low degree. The problem of Korean churches is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pastors and congregations taught in church doctrines.

Calvin defended the Reformed church as the true church, focusing on the truth of God’s Word. He was rightly called a doctor ecclesiae because he prepar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formed church. Calvin’s ecclesiology had an apologetic character, which was not sectarian in nature but searched for the truth of God and tried to recover the true church.

What does Calvin see as the essence and the meaning of the church? He said the essence of the church is the ‘communion of

84) 이만석,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서울 : 4HIM, 2010), p. 174f.

the saints'. The church as the communion of the saints has three elements : 1) the mother of the saints, 2) the body of Christ, 3) the chosen people of God. These elements contribute to the image of the church as the guide to salvation.

The reason why we need the church is because of our ignorance, laziness and weakness. God constituted the church as an outward aid organization and he supplied help to beget and increase faith within us. The immense God humbles himself by accomodating to us and revealing his Grace in the church. The church is a product of that Grace which means that church is not merely a congregation with an outward system. To Calvin the church is the school of faith.

What does it mean that the church is the mother of the faith? Calvin used this term to interpret the church as the field of faith, emphasizing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 church. Contrary to the Catholic church, which follows patriarchal authority, the Reformed church is the place where believers are trained in their faith lives with motherly care. It is necessary for the salvation of the church that it nurture church members and educate them as a mother. The believers are disciples of the church. Man cannot assume the remission of the sins and any salvation as a given.

The Catholic church emphasized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in the doctrine, 'ecclesia est corpus Christi'. In this doctrine, the Catholic church extended the authority of the Pope through Apostolic Succession. As the perpetual primacy has been given to Petrus, they assert the Roman pontiff presides

over the whole church in Christ's place. Contrary to that opinion, Calvin stressed that the Roman pontiff is not the head of the visible church in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 but that only Christ fulfills that role. We perceive these from the concept of the church as : 1) The government of Christ, 2) The communion of the Saints, 3) The growth of the church.

The church is likewise 'communio sanctorum' in which man believes in Christ as Savior of the faith and shares with each other the grace of God. The emphasis of Calvin on the church as a communion recognizes that doctrine within the Apostles creed and also criticizes the ecclesiology of the Catholic church.

The Catholic church classifies itself in two ways : one is the teaching church, the other is the learning church. The former means the cardinals and the priesthood centered in the Vatican in Rome and the latter refers to laymen. The Reformation rejected this arbitrary dichotomy within the Catholic church from which it derived its doctrine of the priesthood, and by so doing recovered the doctrine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1 Petr. 2 : 9).

The church is according to Calvin 'the communion of the chosen people'. It contains two basic premises. 1) The host of the church is God, 2) The Church is the faithful communion of God's people. These two concepts were neglected by the Catholic church.

참고문헌

- 존 칼빈, 「영한 기독교강요」, 편집부 번역, 서울 : 성문출판사, 1993.
- Calvin, J.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Mackenze(trans.)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Calvin, J. T. H. L. Parker(Trans.)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nad Rapids, 1974.
-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빈」,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배경식,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보여지는 변증적 성격」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박경수, 「칼빈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제7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Reid, J. K. 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Vol. XXII,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London : SCM Press LTD, 1954.
- 존 칼빈, 「칼빈의 요리문답」, 한인수 옮김, 서울 : 도서출판 경진, 1995.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제2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 Niesel, W. *The Gospel and The Churches*, 이종성, 김항만 역, 「비교교회론」,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 「신학정론」 제6권 1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황정욱, 「교회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오갑, 「교회론」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배경식, 「교회정치」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최윤배, 「칼빈의 교회직분과 교회권위에 관한 연구」 「칼빈연구」 제4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안은찬, 「칼빈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칼빈연구」 제6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박경수, 「칼빈과 교회일치」 「칼빈 그 후 500년」,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박근원, 「칼빈의 교회론」 한국신학대학출판부,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기독교서회, 1978.
- 황대우, 「칼빈의 교회론」 한국칼빈학회, 「칼빈 1 : 칼빈신학개요」, 서울 : 두란노아카데미, 2009.
- 김수진, 노남도 공저, 「어둠을 밝힌 한국교회와 대각성운동」, 서울 : 쿰란출판사, 2007.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9.
- 배경식, 「종리교회백년사」, 전주 : 집현전, 2007.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7.
- 박양운, 「가톨릭 신학의 어제와 오늘」(기초 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96.
- 오형국, 「칼빈의 신학과 인문주의」,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6.
- 김동호,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마태복음 5 : 13-16, 2010년 1월 31일 평광교회 제목 설교, 교계일반자료 1022번.
- Weber, O. 「Grundlagen der Dogmatik II」, Neukirchen-Vluyn : Neukirchener Verlag, 1987.
- 니브, J. L., 헤이크, O. W.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이만석,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만 바뀔까?」, 서울 : 4HIM, 2010.
-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서울 :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 널 오베로드, 정재현 역, 「오늘의 신학과 신학자들」, 서울 : 한들출판사, 2007.